미수습자 가족들 한 맺힌 절규 “우리의 봄은 언제쯤…”

세월호 4주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됐지만, 희생자 304명 중 5명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공식적으론 3년간의 기다림을 마감하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또 한번 4월의 봄, 참사 그날이 찾아오자, 세월호 선체 직립 후 수색이 재개돼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막연한 기다림 견디기 힘들어
선체직립 후 마지막 수색 기대
광주·전남 등 전국서 추모행사
희생자 위로·진상 규명 촉구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왔지만 여전히 시간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5일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며 세월호에 몸을 실은 권오복(62)씨의 동생과 조카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족을 찾았을 조카 혁규군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다.

권오복씨는 “동생과 조카가 수습되기를 기다리며 3년7개월 동안을 세월호 현장을 지켰다”면서 “세월호 선체가 직립하고 선체수색이 재개되면 다시 목포신항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목포신항을 다시 찾은 권씨는 16일에는 사고 직후 3년간 머문 진도 팽목항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미수습 학생인 단원고 남현철군과 박영인군의 부모들도 안산에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비슷한 처지인 이들 부부는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가장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27일과 28일 각각 하루차이로 세월호 4층에서 박영인군의 교복 상의와 남현철군의 가방이 발견되면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이들은 마지막 수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선체가 바로서면 심한 압착으로 그동안 수색에 애를 먹던 4층 선수 객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미수습자인 단원고 양승진 교사의 부인 유백형(57)씨는 안산 집에서 80대 중반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유씨도 선체직립 후 시작되는 마지막 수색작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유씨는 “4주기인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만 참석할 계획”이라며 “아직 목포신항을 다시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막연한 기다림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며 젖은 목소리를 흐렸다.

한편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16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또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미수습자 조기 수습·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추모퍼포먼스·순례·문화제 등을 개최한다.

진도실내체육관과 진도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진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희생자 추모와 미수습자의 온전한 귀환을 바라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목포신항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전시, 공연, 토론회, 문화제가 이어진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노란 리본 만들며 추모 ‘세월호 4주기 추모 광주 청소년촛불문화제’가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어디로…

진도군 5~6월 군민 설문조사 후 유치 입장 결정

진도군이 ‘세월호 선체 유치’ 후보지 결정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에 나선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월호 선체처리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데에 이어 오는 5~6월 주민들 대상으로 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월 초 열린 공청회에서는 9명의 주민·단체 대표 중 7명에 유치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했다. 중립과 반대는 각각 1명이었다.

유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월호 구조·수습의 거점이었던 진도군의 상징성, 국민해양안전관과의 연계성, 세월호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진도항 개발 저해, 팽목항 주민 90% 유치 반대, 세월호 프레임 탈피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오는 5~6월께 전체 진도군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리서치 등의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의 의견을 분석해 진도군의 입장을 확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

진도군에서는 세월호 선체유치시 팽목항과 서거차도가 거치 대상지로 거론 중이다.

진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세월호의 마지막 출항지 인천항, 단원고 소재지인 안산 화랑유원지와 대부도, 세월호 거치 장소인 목포신항만, 세월호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경기침체 아직도…

소상공인 대출액 상환율 12% 그쳐…어민들도 어려움 여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지만, 진도지역 소상공인과 어민들은 여전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도군이 집계한 10개 지역 금융기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진도군 소상공인 금융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액 상환율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진도 소상공인들은 세월호 관련 대출로 526건 122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2017년까지 상환액은 14억9900여만원으로 상환율이 원금의 12%에 그쳤다.

상환을 완료한 대출 건수도 526건 중 55건에 머물렀다. 어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진도군 수협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어민들이 대출받은 세월호 특별영어자금은 511건 147억9000만원이었다.

4년이 지난 후 어민 상당수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68억여원을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일반대출로 전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일 입은 진도의 소상공인과 어민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했으나, 상당수가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군의 경제난이 4년이 지나도 여전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같은 마을 여성 2명 성폭행·살해 30대 두 범행 각각 징역 20년 씩 40년 선고

광주지법 “영구 격리해야”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와 4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광주일보 2017년 8월 25일자 6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두 가지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모두 40년 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신안 같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씨의 DNA가 2014년 6월 이 마을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박씨가 이 여성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노래 부른 가수 타니 고속도로서 교통사고로 숨져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로 데뷔한 가수 타니(20·본명 김진수·사진)가 지난 14일 새벽 교통사고로 숨졌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타니는 전날 새벽 2시 29분께 장흥군 장동면 조양리 영암~순천간 고속도로에서 목포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타니가 몰던 차량은 사고 직후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타니와 함께 타고 있던 친구 홍모(20)씨가 숨졌다.

경찰은 “당시 이슬비가 내리면서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목포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니는 2016년 12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 ‘불망(不忘)-올웨이즈 리멤버(Always Remember)로 데뷔했다. 올해 1월 신곡 ‘내일-어 배터 데이’(A better day)로 컴백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

신안 해상 어선 충돌 사망사고 낸 화물선 선장 긴급체포

목포해양경찰은 “냉동 운반선 싱유에호(Xing Yue·498t급·탄자니아 선적) 선장 김모(6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40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어선 2007연흥호(15t)와 충돌, 연흥호 선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전 관제해역으로 진입했을 당시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점과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당시 직접 조타를 잡고 있었는데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이 공개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진도 VTS는 지난 12일 새벽 0시32분 싱유에호가 2007연흥호(15t)에 접근하자 두 척 모두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0시35분 싱유에호는 최초 응답을 했지만 “전방에 있는 어선을 조심하라”는 VTS의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연흥호의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신호는 0시 37분께 소실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초등생에 성경험 묻고 신체 접촉한 계약직 강사 징역형

쌍나팔

○…초등학생에게 성경험을 묻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60대 계약직 강사가 징역형.

○…1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계약직 강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라고 명령.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나주의 한 초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일한 이씨는 같은해 8~9월 교실에서 학생 A(12)양에게 성경험을 물어보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박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기자 lucky@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6365	1	광양시 광장로112-20, 102동 11층 1106호 [중동,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17타경 10869	1	여수시 여문2로110, 103동 13층 103호 [문수동,세종캐슬하임아파트] 141.1517㎡	아파트	337,000,000 337,000,000	
2017타경 53620	1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1038, 101동 11층 1108호 [동양엔파트] 84.8864㎡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017타경54326[중복]
2017타경 53927	1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20, 103동 13층 1301호 [여수돌산1차청솔아파트] 59.85㎡	아파트	90,000,000 90,000,000	
2017타경 53989	1	광양시 금영로170, 8동 2층 205호 [광영동,현대아파트] 59.76㎡	아파트	33,000,000 33,000,000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3472	1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191-5 842㎡	답	15,156,000 15,1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0692	1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398-2 1018㎡[장용민지분13분의2전부.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전	2,552,906 2,552,906	지분매각.분묘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0753	1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09 298㎡	답	6,705,000 6,70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11-1 532㎡	답	13,566,000 13,56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1176	1	여수시 광무동 868-3 1174㎡[분묘6기소재]	전	111,530,000 111,530,000	소로2류[폭8m-10m][저촉]
2017타경 11350	1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산154 10413㎡	임야	10,413,000 10,413,000	
	2	동소 산155 29273㎡	임야	35,127,600 35,127,600	분묘소재
2017타경 11596	1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산228 12099㎡	임야	58,075,200 58,075,200	분묘소재
2017타경 11893	1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887 247㎡	대	13,914,000 13,914,000	일괄매각.토지만매각.매각대상아닌건물다수소재
		동소 889 526㎡	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1954	1	여수시 상암동 270-1 7130㎡[김동준지분7130분의1653전부.지분매각.연고미상분묘소재]	전	64,467,000 64,467,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54043	1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176-1 2351㎡[현황일부도로및나대지]	임야	42,235,700 42,235,700	일괄매각.수목포함매각
		동소 산176 9111㎡[현황일부나대지및과수원]	임야		
2017타경 54524	1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1652 549㎡	전	7,686,000 7,68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12905	1	여수시 선원동 1238-1 216.8㎡	대	958,390,740 958,390,7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2016타경8913,2016타경12295,2018타경50246[중복]
		동소 1238-2 207.9㎡	대		
		동소 1238-8 226.8㎡	대		
		동소 1238-9 235.8㎡	대		
		여수시 무선7길 27-12 지층 102.06㎡[현황창고] 1층[점포및학원]523.3㎡ 2층[사무실및학원]520.3㎡[현황1,2층원룸] 제시외 방등 63㎡	학원		
2017타경 10982	1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854 660㎡	대	604,308,820 604,308,8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3,5 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3김종철지분3분의1전부
		동소 854 1층129.68㎡ 2층53.66㎡ 제시외 보일러실 등 18.3㎡	단독주택		
		동소 854-2 91㎡[현황일부도로]	답		
		동소 854-3 244㎡	대		
		동소 854-4 62㎡[현황일부도로]	답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30 [제1동] 1층84㎡ 2층98.64㎡ 3층92.88㎡	단독주택		
[자동차,중기]					
2017타경 5881	1	사용본거지:여수시 무선로 50 114동 206호[학동,신동아파밀리에]등록번호:57더4144 차명:CHEVROLET IMPALA 3.6 연식:2016	자동차	28,000,000 28,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17타경 10210	1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세정호 어선번호:1106001-6265003 선체재질:FRP 총톤수:9.77톤 진수년월일:2011.6.17	선박	260,097,500 260,097,500	보관장소:여수시 국동항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4. 3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5. 4.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전계수